

# 전남체고 사이클 김채연 '세계 챔프' 우뚝

### 주니어 트랙 사이클 세계선수권 여자 500m 독주 우승 아시아선수권 우승 두달 만에 국제대회 잇따라 '금메달'

대한민국 사이클 유망주 김채연(전남체고 3년)이 2022 국제사이클연맹(UCI) 주니어 트랙 사이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월드챔피언이 됐다.

29일 대한자전거연맹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김채연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2022 UCI 주니어 트랙사이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 독주 결승전에서 클라라 슈나이더(독일), 필리 니콜라에스(벨기에)를 누르고 1위로 결승전을 통과했다.

지난 6월 주니어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500m 독주에서 우승한 김채연은 두 달 여 만에 또 하나의 국제 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채연은 500m 독주 예선에서 35.103초의 기록으로 참가선수 가운데 1위로 예선을 통과한 데 이어 결승전에서는 34.871초 기록을 세우며 35.048초를 기록한 클라라 슈나이더를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이로써 김채연은 내년 새 주니어선수권 대회가 열릴 때까지 UCL 주관 대회의 500m 독주 종목에 출전할 때마다 UCL의 '월드챔피언 저지'를 입고 나선다.

김채연은 개인스프린터 200m에서 11.394초로 예선 3위를 기록했으나 결승에서 예선 1위를 기록한 클라라 슈나이더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김채연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로서 처음 출전하는 세계대회라 다소 긴장했지만 학

교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집중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김채연을 비롯한 여자부가 선전했다.

김도예(17·인천체고)도 여자 경륜 종목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따냈고, 나운서(전남마용고 2년)는 500m에서 36.707초로 9위를, 스프린트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각각 남자부 1,000m 독주, 경륜 종목에 출전한 김근우(18·인천체고), 배준형(18·영주제일고)은 6위를 기록했다. 스프린트 종목에 나선 이찬영(18·부산체고)은 8위에 올랐다.

최기락 국가대표팀 감독은 "코로나19로 3년 만에 출전하는 국제대회인 만큼 선수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썼는데, 선수들이 열심히 해준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UCI 주니어 트랙 사이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전남체고 김채연. /연합뉴스

# 한국 스포츠 미래들 '한일대첩' 이끌다



29일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바스켓볼홀에서 열린 2022 FIBA U-18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한국팀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U-18 아시아농구 22년만에 우승

한국 18세 이하(U-18) 남자농구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로 한때 10점 차로 끌려가던 경기를 뒤집고 22년 만에 아시아선수권 정상에 등극했다.

이세범 용산고 코치가 이끄는 한국은 지난 28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제26회 국제농구연맹(FIBA) U-18 아시아 남자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일본과 결승에서 77-73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0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대회 이후 22년 만에 아시아 U-18 남자농구 최강의 자리에 복귀했다. 일본과 U-18 대표팀 간 맞대결에서도 최근 5연승을 거두며 12승 6패로 격차를 벌렸다.

짜릿한 역전승이었다. 한국은 2쿼터 중반까지

26-36, 10점 차로 끌려가며 고전했다. 그러나 2쿼터 막판 지역방어가 위력을 발휘하며 점수 차를 좁혀 전반을 44-46까지 따라붙은 가운데 마쳤다.

4쿼터 중반 이후로도 위기가 찾아왔다. 68-64까지 앞서다 역전을 허용했고, 종료 4분 33초를 남기고는 가로채기에 이어 아마다 데타에게 속공 당크까지 연어맞아 68-71로 점수 차가 벌어졌다.

한국은 종료 2분 33초를 남기고 이해술(광신방송예고)이 동점 3점포를 쏴야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종료 1분 34초 전에는 구민교(제물포고)가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골밑 득점으로 2점 차 역전에 성공했다. 일본이 종료 1분 08초를 남기고 호시카와 가이세이의 자유투 2개로 다시 동점을 만

들어 승부는 남은 1분에 갈리는 상황이 됐다.

이주영(삼일상고)의 3점 시도가 빛나며 공격권을 일본에 내줬으나 이해술이 스틸에 이은 속공으로 종료 26초를 남기고 2점 차로 다시 앞섰다.

일본의 마지막 공격에서 와쿠가와 하야토의 골밑 돌파가 무위에 그쳤고, 한국은 종료 6초 전 이주영이 2점을 보태 우승을 확정하고 환호했다.

이주영이 3점슛 3개를 포함해 28점(4리바운드 5 어시스트)을 뽐냈으며 대회 MVP 영예를 안았다.

한국이 치른 5경기에 모두 출전한 이주영은 경기당 37분여를 뛰면서 23.2점을 받아 평균 득점 1위에 올랐고, 3.4리바운드 4.6어시스트 1.6스틸을 견들었다. 이주영은 대회 베스트 5 격인 '올스타 파이브'에도 이름을 올렸다. 올스타 파이브에는 이재형도 포함돼 우리나라 선수가 두 자리를 꿰찼다.

/연합뉴스

## 한국 U-18 핸드볼 8년만에 결승 진출

한국 18세 이하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제9회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결승에 올랐다.

한국은 29일 바레인 마니라에서 열린 대회 6일째 일본과 4강전에서 23-21로 이기며, 2014년 이후 8년 만에 이 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열린 준결승에서는 이란이 연장 접전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33-32로 몰리치고 결승에 올라 우리나라와 우승을 놓고 맞대결하게 됐다.

한국과 이란의 결승전은 한국시간으로 9월 1일 0시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우리나라는 이란과 조별리그에서 한 차례 만나 29-24로 승리했다.

18세 이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이 대회에서 한국은 2005년과 2014년 두 차례 우승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3위, 2018년에는 조별리그 이라크와 경기 도중 '고의 패배' 혐의를 받아 실격 당했다. 2020년 대회는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

이 대회 상위 5개국에 주는 2023년 크로아티아 19세 이하 세계선수권 출전권도 이미 확보했다.

/연합뉴스

## 스페인, 일본 꺾고 U-20 여자 월드컵 첫 우승

스페인에 대회 첫 2회 연속 우승을 노린 일본을 꺾고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스페인인 29일(한국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FIFA U-20 여자 월드컵 결승에서 일본을 3-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2002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가운데 스페인이 우승하기는 처음이다.

스페인인 미국, 독일(이상 3회), 북한(2회), 일본(1회)에 이어 이 대회에서 정상에서 본 다섯 번째 국가가 됐다. 아직 대회 2회 연속 우승을 이룬 나라는 없다.

2018년 프랑스 대회 결승에서 스페인을 3-1로 꺾고 사상 처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일본은 2연패 직전에서 꿈이 깨졌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대우행으로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직전 대회 결승에서 맞붙었던 두 팀이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다시 마주 섰고, 스페인이 4년 전과 같은 점수로 패배를 설욕했다.

전반 12분 인마 가바로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은 스페인은 살마 셀레스트 파랄루엘로 아잉고노가 전반 22분 추가 골에 이어 27분에는 페넬타리로 한 골을 더 보태 3-0으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우승을 예감했다.

일본은 후반 시작하며 교체 투입된 아마노 스즈가 2분 만에 추격 골을 터뜨렸지만 더는 스페인 골문을 열지 못했다.

앞서 열린 3-4위 결정전에서는 브라질이 네덜란드를 4-1로 누르고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황인선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팀은 캐나다(2-0승), 나이지리아(0-1 패), 프랑스(0-1 패)와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C조 3위에 머물러 조 2위까지 진출하는 8강에 오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 학생 선수들 평일 대회 참가 가능해졌다

### 문체부,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재검토...보완책 내놓기로

학생 선수들은 앞으로 큰 제약 없이 평일에 열리는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권고안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며 보완·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교육부)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문체부) ▲소년체전 개편(문체부·교육부) 등을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며 "학생 선수·학부모·전문가와 체육인들은 권고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분석했고, 이에 예산 집행이 미진한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지원사업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체전의 명칭과 초·중등부로 구성되는 현 체제는 유지하되, 현장 의견을 들어 세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2월 체육계 인권 침해, 일명 스포츠 '미투'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혁신위는 시민단체, 스포츠 인권, 체육계 등 민간위원과 문체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7차례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현실과 동떨어진 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혁신위 권고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다.

문체부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출석 인정 일수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헌트
2관	헌트
3관	헌트, 육사오(6/45), 미니언즈2
4관	한산: 용의 출현
5관	육사오(6/45)
6관	육사오(6/45)
9관	볼릿 트레이너
7관	세네케플, 육사오(6/45), 탐간: 매버릭, 미니언즈2, DC 리그 오브 슈퍼-팻
8관	세네케플, 늑, 비상선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II  
**2인 가극 아파르트**  
Chamber Series  
2022. 9. 19. ~ 20. | 광주 공연장  
문의: 062-613-8235

**광주국악상설공연**  
2022. 9. 1. (목) - 9. 30. (금)  
매주 수-일 17:00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 8372

즐거움  
**문화산책**